

교협브리프

01

2017

죽전캠퍼스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Tel. 031-8005-2894
천안캠퍼스 (330-71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학생회관 425호 Tel. 041-550-1553

인사말

이은재 (교수협의회 회장)



존경하는 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원님들께

우리대학 교수님들은 특히 사립대학이 직면한 열악한 교육 및 재정 환경 하에서 대내적으로 교육 및 연구실적 등의 평가기준 강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공급과잉과 학령인구감소 등으로 촉발된 치열한 입시 및 대학 평가 등을 통해 대학 본연의 학문적 기본에 충실하기보다는 시장논리에 의한 무한 경쟁의 벼랑 끝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는 일선교육현장 즉, 교단과 연구실에서 홀로 온갖 수모를 온몸으로 외롭게 견뎌내고 계시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대학 교수협의회는 1989년 4월 어느 누구의 간섭과 지시 없이 교수님들께서 스스로 분연히 떨쳐 일어나셔서, 주체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수님들의 권익과 교권을 확립하고 대학발전을 위해 학내외의 무수한 권위적이며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고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의 기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부족하고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7년 3월 출범한 제15기 교수협의회는 훌륭한 선배교수님들께서 교협을 탄생시키실 때 가졌던 자유의지와 헌신 그리고 각고의 노력을 기반으로 '섬김' '소통' '참여'의 모토를 기치로 내걸고 척박한 우리의 현실에 교협 깃발을 휘날리며 역사적 장도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협의 모토가 대학의 모든 의사결정시 민주적 합리적 절차에 의해 모든 교수님들께서 참여를 통해 공감하실 수 있는 소통 수준으로 모든 대학정책 및 제도에 녹아내려 궁극적으로 교수님들의 권익 신장과 대학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선순환적인 의사결정모델이 개발되고, 대학사회의 모든 학문 분야 및 단위까지 착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협은 숨가쁘게 지금도 교수님들의 숭고한 명령을 받들고 섬기고 소통하기 위해 부단히 함께 질주하고 있습니다.

제15기 교협에서는 재삼 교수님들께서 하명하시는 다양한 참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중한 고견들을 충실히 소통하고 수렴하여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섬김의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교협의 이름으로 가슴 속 깊이 다짐하고 약속드립니다. 교수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 어린 성원을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교수님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충심으로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1. 제15기 교수협의회 회장 및 감사 선출

- (1) 투표기간 : 2016년 11월 15일(화) 09:00 - 28일(월) 16:00
- (2) 개표기간 : 2016년 11월 28일(월) 18:00
- (3) 투 표 율 : 51.3% (총 890명 중 457명 투표 - 죽전 226명, 천안 231명)
- (4) 당 선 자 : ① 회장: 이은재 교수 (죽전캠퍼스 무역학과) 득표 476표 (찬성율: 97.8%)
 ② 감사: 김태환 교수 (죽전캠퍼스 경영학부) 득표 460표 (찬성율: 96.9%)
 ③ 감사: 박희철 교수 (천안캠퍼스 수학과) 득표 460표 (찬성율: 98.2%)



이은재 회장



김태환 감사



박희철 감사



조한승 사무국장

2. 교협 운영위원 및 실무진 선임

- (1) 제 15기 운영위원 위촉 (총 52명)
 - ① 죽전캠퍼스 : 24명 (12개 단과대학, 여교협)
 - ② 천안캠퍼스 : 24명 (14개 단과대학, 여교협)
 - ③ 회장, 사무국장, 감사 2인 포함 총 52명의 운영진 구성
- (2) 교협 사무국장 및 조교 선임
 - ① 사무국장 : 조한승 교수 (죽전캠퍼스 정치외교학과) (hanscho@dankook.ac.kr, 죽전 3318)
 - ② 죽전조교 : 이근주 (죽전캠퍼스, 석사과정 : 12170313@dankook.ac.kr, 죽전 2894)
 - ③ 천안조교 : 장재석 (천안캠퍼스, 석사과정 : 1270986@dankook.ac.kr, 천안 1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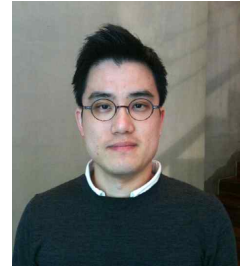
3. 교협업무 인수인계 실시

- (1) 일 시 : 2017년 2월 26일 12시
- (2) 장 소 : 죽전캠퍼스 교수협의회 사무실
- (3) 내 용 : 각종 서류 일체, 통장, 직인 및 카메라 등 인수함.

4. 정기예금 계좌 개설

- ▷ 제14기 이월금 12,788,100원 중 10,000,000원 (5백만원 x 2계좌) 예치
- ▷ 정기예금 금리 1.5 % (연간 총 150,000원 추가 수입 예상)

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를 구성하는 954명의 전임교수들은 단국대학교가 우리의 소중한 직장임을 직시하고, 남다른 애교심으로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의 전 영역에 걸쳐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캠퍼스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해 우리 학교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진의 부단한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처한 어려운 대내적, 대외적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3년간 진행된 연구지원 환경의 지속적인 악화는 단순한 물적 지원의 부족 이상으로 교수들의 연구 활동과 자존심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 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017년도 1학기 동안 개최된 통합운영위원회, 각 지회, 분과위원회 및 T/F위원회 등에서 수렴된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과 심의 과정을 거쳐 아래의 사안을 공식적으로 건의 드리고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연구년 제도의 개선

연구년은 교수들의 보편적인 기본권이며 성과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의 연구년 제도는 최근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원도 학과 규모의 7%에서 10%로 환원되었고, 연구업적의 비중보다는 학장 또는 학과장의 평가의 비중이 확대되었고 신청기간도 본래대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년을 교수의 연구 업적과 학장 및 학과장의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는 발상은 기본적으로 연구년을 교수의 성과 또는 역량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관점이므로 시급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수들은 누구나 입직 후 6년이 지나면 연구년을 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연구년 이후 교수님들의 창의적인 연구와 강의를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직무 소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죽전과 천안의 캠퍼스 통합으로 인해서 특정 학과의 경우 연구년 대상자가 몰려서 적체되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는 교수이고, 교수의 연구력은 우리 대학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연구년을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버리고, 교수의 기본권 및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운영 요소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연구비 지원 개선

대학에서 교수들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상이 대학연구비와 연구장려금입니다. 2014년도 까지 교내연구비는 신청하는 모든 교수들에게 지급되었지만, 지금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상위 10-20%에 해당하는 소수의 연구자들에게만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구업적에 정비례하여 지급되던 연구장려금도 연구업적이 높을수록 구간별 금액이 점증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적이 높은 연구자들에게 차등적인 보상을 하는 것은 성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인문 사회분야와 같이 상대적으로 연구업적을 쌓기 힘든 분야도 있기 때문에 업적점수만 고려하여 장려금이 가산되는 현행의 구조는 공정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예산 중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대학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수준입니다. 대학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연구비 비중을 적극적으로 높이고, 다양한 방면에서 교수의 연구를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산학협력단(단장서명)을 통한 외부용역 연구뿐 만아니라 대학본부(총장님서명)를 통한 사업(특히 인력양성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연구 또는 사업의 책임자만 연구업적을 부여받고 있는데, 참여하는 다른 공동 연구자들도 기여도에 따라서 연구업적을 부여받는다면 보다 공정한 제도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도입된 우리학교의 대학연구비(융합연구) 과제에도 연구업적 질적 평가에 따른

IF(impact factor)의 가중치가 적용되어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연구업적 평가의 기준은 승진, 재임용 뿐 아니라 교내에서 평가하는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외에도 영문교정료 지원 재개, 학술대회 발표의 연구업적 인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 지원이 과거의 수준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3. 연구지원 환경의 개선

주지하다시피 교수 연구실에서 컴퓨터와 모니터가 차지하는 위치는 단순한 행정 처리용 물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교수의 컴퓨터, 모니터 등은 주기적 교체가 아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시에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컴퓨터 등을 단순한 기능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현재 방침은 단기적으로는 운용비용을 절감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업무능률의 저하와 조직지원인식의 저하, 냉소주의의 만연과 같은 교체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총장님께서서는 우수한 인재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몇 배의 결과로 조직에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장기적인 학교발전의 관점에서 과거처럼 컴퓨터와 모니터의 정기적인 교체를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2014년 이후 대학의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구독 전자저널이 대폭 감소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교수님들의 연구에 꼭 필요한 저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SPSS나 AMOS, CAD와 같은 통계적 프로그램의 사용 및 구입도 과거보다 줄어들어 교수들이 이를 복사하여 사용하거나 타 학교의 지인들로부터 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연구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지원에 대한 인식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교수님들의 애교심과 조직 충성도를 저하시키고 우수한 인재들의 이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우리 대학의 위상을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시킬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4. 인사조치 전달 방식에 대한 개선

교수 연구 활동의 결과인 승진 및 승급 탈락자에 대하여 조교 및 교직원 모두 알 수 있도록 개방 공지되는 그룹웨어시스템이 해당 교수의 자존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행정 조교들이 인사결과에 대해서 알게 되어 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수님들의 인사 조치에 대한 결과는 그룹웨어에서 학장 급에게만 보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프라인으로 학과장을 통해 해당교수님께 통지하도록 그룹웨어에서 권한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연구지원에 관한 저희들의 안건이 대학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진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합니다.

5. 시간표 회의 및 개설 강의실 문제 개선

교수의 연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강의입니다. 교수가 연구와 강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 다음 학기 시간표 회의 일정 등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학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진행되거나, 학교 예산 절감을 목표로 지나치게 대규모 강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교수의 연구 활동에도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강의실이 많은 상경대는 교양과목 개설의 주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이로 인해 오히려 전공 수업 개설 및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협 T/F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 상경대의 절대적인 교양과목 개설 수는 인문관, 사범관 대비 상대적으로 작지만, 상경대에서 개설되는 총 전공과목 개설 수가 많음을 고려할 때(사용 가능 강의실 대비 총 개설과목 수 - 상경관 14.7개, 인문관: 9.4개, 사범관: 8.8개), 교양과목 배정의 부담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해당 단과대학의 전공과목 개설의 어려움과 강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너무 많은 교양과목, 학군단, 교직 과목 등이 사전 배정되면서 전공 과목 개설이 제약을 받는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6. 전임교원 수업일수 및 개설 시간의 탄력적 조정

현행 전임교수의 주 4일제 수업은 학교수업에는 충실하지 않고 외부활동에만 집중하는 소수의 교수들을 견제하고 강의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4일 수업은 교수들의

또 다른 의무인 대외활동과 연구에 대한 몰입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최소 주 3일 이상 수업으로 재량권을 부여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교수는 전문직으로서 자기분야에 대한 자율성이 높을 때 직업에 대한 보람과 함께 성과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없는 2일은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상담일 또는 연구일로 활용한다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요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강을 실시한다면 강의실 활용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임교수 최소 1강좌 1교시 개설을 의무로 강제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은 학생들이 대부분 1교시 수업을 기피하면서 오후 수업에 지나치게 수강 인원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수강 신청 및 수업과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대형 학과의 경우 같은 과목의 오전 개설 분반의 경우 10명 내외만 수강 신청하고, 오후 시간에 개설된 분반은 80명 이상 신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10명 내외 과목은 결국 폐강되어 학사팀에서 다음 학기 해당 과목 분반 수를 줄이게 되고, 결국 적은 분반 수에 다수의 수강생이 참여하는 악순환 반복되어 수업의 질 저하, 학생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의 부담으로 인해 교수의 연구 성과에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7. 강의평가 제도의 바람직한 활용 및 개선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강의평가에 의해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수 학생들의 악의적인 평가로 인해서 교수로서 자긍심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현행 강의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술형 평가에서 욕설 등 비방성 평가문구를 제어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단어는 필터링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교수의 영향력이 높은 학과의 경우에는 강의평가 점수가 부풀려질 가능성이 높고 익명의 학생들을 상대해야 하는 대형 강의의 경우에는 강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의평가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수 학생들의 악의적인 평가가 평가점수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강의평가점수 중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총 평점을 산정하여야 합리적인 강의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대학은 학사운영점검위원회 회의 결과(2017.06.17.)에 따라 강의평가의 특정 항목을 활용하여 해당 항목의 점수가 평균 3.5미만 전임교원에 대해서 '주의, 경고, 상여금 제한' 등의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강의 평가 제도는 보다 품질 높은 수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및 교수들의 자기성찰 수단이지, 교수에게 제재를 가하는 평가 수단이 아님을 명확히 확인하여 해당 정책의 취소를 다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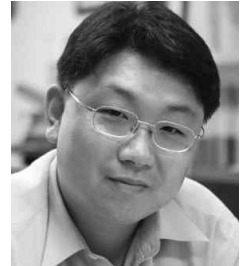
8. 연구 공간의 효율적 활용 추진 필요

위에서 언급한 교수의 연구력 향상 및 강의실 문제 개선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번 학사구조개편 계획에 연구실, 강의실 등의 효율적 공간 운영 문제를 함께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완성될 70주년 역사관을 활용하는 계획을 적극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70주년 기념 역사관에 교양을 위한 대단위 강의실을 확보하여, 일부 단과대학의 강의실 확보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과대학에서 강의실이 부족한 경우 해당 학관의 연구소와 상담실 등은 여유가 있는 다른 학관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강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교수의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9. 후생복지 확대 및 개선

학교의 재정이 어려운 2014년 이후에 교수수첩 및 달력의 배포가 중지되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교수수첩과 달력이 구성원으로서 연대와 정체성을 가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예전처럼 교수수첩을 다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수 연구실 청소, 교수 동아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 등도 보다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추가로 퇴직한 교수님들도 학교에 기여한 부분을 감안하시어 학교 의료시설들을 재직 교수님에 준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그동안 학교당국이 준비해온 2020년 학사구조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교협은 각 전공 및 학과 교수님들, 단과대학 학장님, 학교 당국 등과 신속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응하여 왔습니다. 교협 사무국은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교수님들께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래 —

날 짜	교 협 활 동
6월 7일	신 학사구조개편 초안작성 완료 인지 후 학교당국과 공론화에 대한 첫 의견 교환
6월12일	신 학사구조개편 초안에 대한 개괄내용 확인 후 개편 원칙, 공론화 범위 및 일정 협의
6월15일	신 학사구조개편 관련 전체교수 공청회 개최 학교 당국에 요구 (공청회 개최 이전 학사구조개편에 대한 공식의사결정 유보 조건)
6월16일	학교 당국과 신 학사구조개편(초안)에 대한 전체교수 대상 설명회 개최 합의(6월 26일 천안, 27일 죽전) 및 추후 공청회 개최와 유보 조건에 대한 합의 교협 통합 운영회의에서 위 합의내용 보고
6월21일	교무회의에서 (의결 없이) 신 학사구조개편 (초안) 공식발표 신 학사구조개편 초안 교협 입수 및 보고
6월23일	학교당국과 협의
6월26-7일	양 캠퍼스 전체교수를 대상으로 학사구조개편(안) 설명회 개최
7월2-13일	교협 의견서(6월 23일 긴급임원회의의 결정[참고1])와 함께 설명회 의견수렴 내용 및 교협에 접수된 관련학과의 의견 학교 당국에 전달
7월28일	학교 당국의 1차 학사구조개편 확대회의 개최
7월31일	학교 당국과 협의 후 1차 학사구조개편 확대회의 주요 논의 보고
8월 8일	학교 당국의 2차 학사구조개편 확대회의 개최
8월 9일	학교 당국과 협의 후 2차 학사구조개편 확대회의 주요 논의 보고
8월16일	학교 당국의 3차 학사구조개편 확대회의 개최
8월17-8일	학교 당국과 유관 단과대학 및 학과 등과 협의 후 3차 학사구조개편 확대회의 주요 논의 수정보고 ([참고2])
9-10월 내	공청회 개최 후 의견수렴을 거쳐 교무회의, 평의회 그리고 이사회 등 공식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 예정
주) 위 경과보고는 학교 당국과 다수의 비공식 의견교환 및 협의일정들 등은 제외했음.	

[참고1] 신 학사구조개편 초안에 대한 교협의견서(6월 23일 긴급임원회의 결정) 요지

교협은 학교 당국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요구함.

1. 학사구조개편 공론화 절차에 관한 세부 일정 공지.
2. One campus 체제 하 단과대 통합 관련 행정 라인 세부 정비(안) 도출.
3.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전공/학과/학부 재편, 단과대 명칭, 교육과정 개편 등 각 전공교수님들과 충분한 소통.

[참고2] 제3차 학사구조개편확대회의 최종 논의 내용 및 추후 일정 보고 요지

- I. 단과대학 존치 여부 (예, 법과대학, 국제대학, 간호대학 등)
 1. 의과대학 간호학부⇒간호대학으로 존치 (보건복지부 정원통제학과로 예외인정)
 2. 국제대학 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으로 개편 (학문적 유사성 기준)
 3. 법과대학 법학과로 존치 및 단서 조건 (27년 법대발전계획 평가 후 개편여부 재논의)
- II. 단과대학 통합 여부 :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인문사회과학대학으로 통합
- III. 단과대학 신설 여부: 천안캠퍼스 인문대학 소속 전공⇒글로벌지역학대학으로 신설 개편
- IV. 전공존치여부 :
 1. 음악학부내 작곡전공 존치 (예술분야 기초학문 인정)
 2. 죽전캠 인문사회과학대학 인문학부 영미인문학전공, 천안캠 글로벌지역학대학 영어영미학과 개편 존치
 3. 공과대학 고분자공학 및 파이버시스템공학 교수님 통합 원칙적 찬성 (학과명 및 교과과정 추후의견 수렴)

※ 단, 이상의 잠정결정(안) 이외에 단과대학별 기타 학과 및 전공의 조정에 대한 논의 여지 있음.

활 동	2017년도 제1,2차 통합운영위원 회의 개최	교수협의회 사무국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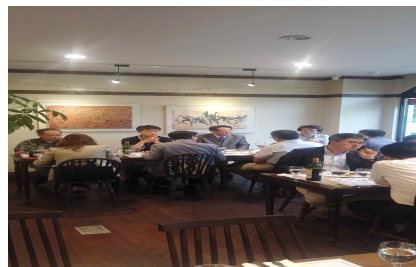
1차

1. 일시 : 2017년 3월 31일(금) 16:00
2. 장소 : 죽전캠퍼스 범정관 대회의실(505호)
3. 참석현황 : 총 34명 (죽전캠퍼스 19명, 천안캠퍼스 15명 : 위임하신 운영위원수 제외)



2차 (워크숍)

1. 일시 : 2017년 6월 16일(금) 16:00
2. 장소 : 죽전캠퍼스 범정관 대회의실(505호)
3. 참석현황 : 총 25명 (죽전캠퍼스 17명, 천안캠퍼스 8명)



단국대학교가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이한다!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내가 은퇴 후 개교 100주년 행사에 참가할 수 있을까하고 가끔 생각 해 보는데, 문제는 학교의 건재와 내 건강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어려서 항상 친구들과 걸어 다니며 놀기를 좋아했던 내 습관은 나이가 들면서 교통수단을 사용하고 걷는 횟수는 줄어들었고, 몸은 천천히 비대해 지고 의지는 약해지기 시작했다. 마포에서 서대문, 광화문, 서울역, 여의도와 한강주변을 등을 걸어 다니다 지나가는 차량을 보면 언젠가 어른이 되어 차를 몰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이제 장년이 된 나를 걷기를 귀찮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젊어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할 때도 그 추운 날씨와 무거운 군장 때문에 제대하면 다시는 장기간 걷지 않고 차 몰고 다녀야지 하는 생각을 했고, 직장생활을 할 때는 도회지의 흙길은 모두 아스팔트로 포장된 상태에서 거의 매일 반복되는 회식으로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는 '승차'라는 간단한 선택으로 나 자신을 합리화 시켰다. 이제 비포장 길이 많았던 한국의 옛 모습은 외국의 오지를 가야만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의 길이 되었고, 걸으며 보고 생각하던 나의 어린 시절 호기심은 어느덧 아스팔트 안에 사장되고 말았다. 지금 젊은이들이 보는 아스팔트 길은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 보며, 그들의 미래를 성경에 나오는 '가시밭 길'과 '인생의 성공'이란 두 단어로 연결해 보며 나의 과거를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한남동에서 대학을 다닐 때와 직장생활을 할 때 가끔 남산을 오르던 학교 뒤 등산로도 이제 대부분 포장되었는데, 학교가 죽전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학교 뒤에 법화산이 있어 자주 산길을 걸을 수 있는 기쁨을 되찾게 되었다. 사실, 흙길과 숲을 지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과 상상력을 준다. 인간은 걸으며 생각하고, 걸으며 의지를 다지고, 걸으며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닐까? 즉, 인간은 태어나 누워 있다가 기어다니다 걸어 다니거나 뛰다가 다시 걸음 속도를 줄여나가다 눕는 것은 아닌지!

아스팔트 물인 나의 어린 시절 꿈은 사실 내가 자전거를 타고 왕복했던 임진각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서울에서 다시 천안을 거쳐 부산까지 걸어보는 것이었고, 또는 인천에서 강릉까지 걸어보는 것이었다. 혹은 한강의 모든 대교를 걸어서 한강 위에서 강북과 강남을 보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건기의 목적은 언젠가 내가 걸을 수 있는 시기에 남북한이 인적, 물적 교류가 된다면 걸어서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가보는 것의 예비연습이라고나 할까! 내가 태어난 아름다운 금산강산을 걸어 다니는 것은 내가 태어난 이 조국에 대한 나의 작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생에서 걷고 뛸 수 있다는 것은 젊음과 청춘의 상징이 아닌가!



여하튼,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개교 70주년 기념 국토대장정'이라는 학교 안내를 보고 난 정말로 참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동적이라도 걷는다는 기쁨을 얻는 것과 동시에 올해를 내 인생의 해로 만들 수 있고, 개교 100주년을 볼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할까! 혹은, 걸으며 단국대학교의 역사도 배우고 학생들과 어울리며 '삼인행, 필유아사'의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까? 아니면, 걸으면서 지금 도시화되고 조직화된 사회에서 형성된 복잡한 나의 사고를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할까?



참가를 결정한 순간에는 단순히 걷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원래의 계획은 임진각에서 천안독립기념관까지 가려고 생각했다. 참가 전 일부 교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혹은 학생들을 챙겨야 하니 힘들지 않겠냐고 참가하지 말라고 나에게 권하는 동료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참가하지 않으면 나의 걷는 인생계획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집을 부리며 참가했다. 그러나 애초의 생각과는 다르게 중간에 몸상항도 좋지 않고 일부 밀린 일들이 있어 임진각에서 단국대학교까지만 걸었다. 혹은, 내가 걸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무리에 끼어 그들과 같이 움직

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걷는 것이 힘든 주 이유는 매일 비가 내려 오랫동안 장시간 걷는 연습이 되지 않던 내발바닥에 물집이 많이 잡혀 발을 디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같이 끝까지 동행해준 학생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아니었다면 난 중간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난 임진각에서 학교 연구실까지 단 한 번도 차량이나 이동용 기계를 이용하지 않았고, 내 발바닥의 도장을 임진각에서 학교까지 찍어 내려왔다. 내가 이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생들의 의지에 내가 탄복하였기 때문이고, 더불어 나의 약한 모습을 학생들이 배우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번 국토대장정이라는 걷기 행사를 통해 나는 학생들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의 유머와 예절 그리고 그들의 의지와 생활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학교사랑도 이해할 수 있었다. 걸으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며 ‘맥날(맥도날드)’ 등 유행어도 배웠고, 그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생활 방식 등을 간접 경험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들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사회의 모범이 되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하는지를 터득한 것과 동시에, 낮추어 배우는 ‘함께하는 리더십’을 터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과 교육은 같이 소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터득했는데, 학교에서 남은 기간 학생들과 소통하며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즉, 내가 아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는 학교, 사회, 인생 그리고 인간관계와 인적네트워크가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배우는 큰 배움의 터가 이번 행사였다고 본다. 그들이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과 그들의 교류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약간 이해가 간다. 이것이 이번 활동 참가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생각한다!

학교에서 많은 경비를 지원하며 한 행사에 나이 든 장년의 선생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학교 관계자와 나이든 아저씨를 편하게 대해준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려 태양을 피할 수 있게 해준 하늘에도 감사한다. 단국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내 스스로 학교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단국대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다. 학교가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끼며, 학생들이 학교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학교생활을 해야겠다. 벌써 단국대학교 설립 70주년이다! 요즘 시국을 보면 ‘자주, 구국’이란 말이 현재 우리나라와 이곳의 젊은이들에게 절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범정선생님의 혜안이 다시 느껴지는 충언을 생각하며, 단국대학교와 학생 및 교직원들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해 본다.

같이 걷는 동안 어떤 학생에게 냉면과 ‘맥날’을 사주기로 했는데, 만나면 꼭 기억해야겠다.



1. 교직원 공제회비 공제 : 매월 기본급의 3%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

2. 경조비 지급 기준

- 신청기한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각 캠퍼스 총무과에 제출
- 치료보조비 "규정 삭제"
- 본교 직원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회갑 전에 정년 퇴직시 퇴직 위로금 외에 본인 및 배우자(생존시)의 회갑 축하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분	해 택 범 위	금 액	구 비 서 류
결 혼	본 인	50만원	청첩장
	자 녀	30만원	
회 갑	본 인	20만원	없음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20만원	주민등본, 호적등본
사망조의금	본 인	200만원	부서장 명의의 부고장 또는 사망자의 제적된 호적등본
	배우자	100만원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50만원	
	자 녀	40만원	

3. 융자 대여 신청

융 자 금 액	이 율	상 환 기 간	상 환 방 법
200만원까지/5년 미만 재직	별도로 정한다	1년,2년,3년,4년,5년 중 선택	원리금은 매월 봉급에서 상환
500만원까지/10년 미만 재직			
1000만원까지/10년 이상 재직			

4. 퇴직 위로금 지급 기준 (2009년 9월 1일 개정)

근 무 년 수	현재기준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년 이상-3년 미만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3년 이상-5년 미만	기본급 1/2개월	기본급 1/2개월	기본급 1/2개월	기본급 1/2개월	기본급 1/2개월	기본급 1/2개월
5년 이상-10년 미만	기본급 1개월	기본급 1개월	기본급 1개월	기본급 1개월	기본급 1개월	기본급 1개월
10년 이상-14년 미만	기본급 2개월	기본급 2개월	기본급 2개월	기본급 2개월	기본급 2개월	기본급 2개월
14년 이상-18년 미만	기본급 3개월	기본급 3개월	기본급 3개월	기본급 3개월	기본급 3개월	기본급 3개월
18년 이상-21년 미만	기본급 4.5개월	기본급 4개월	기본급 4개월	기본급 4개월	기본급 4개월	기본급 4개월
21년 이상-24년 미만	기본급 6개월	기본급 5.5개월	기본급 5개월	기본급 5개월	기본급 5개월	기본급 5개월
24년 이상-27년 미만	기본급 7개월	기본급 7개월	기본급 6.5개월	기본급 6개월	기본급 6개월	기본급 6개월
27년 이상-30년 미만	기본급 8개월	기본급 8개월	기본급 8개월	기본급 7.5개월	기본급 7개월	기본급 7개월
30년 이상	기본급 9개월	기본급 9개월	기본급 9개월	기본급 9개월	기본급 8.5개월	기본급 8개월

5. 신청 및 문의처 : 각 캠퍼스 총무과 (죽전 총무과 ☎ 2113, 천안 총무과 ☎ 1113)

활 동**교내CMS 활용한 신新교수협의회홈페이지 구축****교수협의회 사무국**

- * 기존 :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위탁하여 업체에서 홈페이지 관리
(자체 홈페이지 내용수정 불가)
- * 변경 : 교내 CMS를 활용한 교수협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교수협의회 자체 관리 가능
- 홈페이지 주소 : <http://cms.dankook.ac.kr/web/professor>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검색창에 '교수협의회' 검색하여 접속 가능
- 교수협의회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페이스북 검색창에 '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 검색하여 접속 가능

활 동**총장직속 '소리샘' 설치****교수협의회 사무국**

- 당선인사 시 '소통'을 최우선시하여 총장직속 '소리샘'설치를 건의하여 현재는 설치되었음
홈페이지 > 대학소개 > 총장소개 > 단비소리(소리샘)

활 동**총장님 대교협 취임식 축하화환 전달****교수협의회 사무국**

1. 일시 : 2017년 4월 7일(금)
2. 내용 : 장호성 총장님 대교협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화환 전달

**활 동****신임교수환영 및 춘계등반대회 개최****교수협의회 사무국**

1. 일 시 : 2017년 4월 29일 (토) 10:00
2. 장 소 :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 - 등반코스과 체험학습(비누공방, 양초공방) 진행
3. 내 용 : 참가교수 및 가족 기념품 및 경품 증정(블루투스스피커, 영화예매권, 커피이용권, 시계꽃이 등),

**활 동****교내 미화원 어버이날 선물 증정****교수협의회 사무국**

1. 일 시 : 2017년 5월 11일 오후 3시
2. 장 소 : 죽전캠퍼스 직원 사무실 및 천안캠퍼스 국제회의장
3. 내 용 : 교내 미화 담당분들께 감사의 메시지와 교협의 작은 정성 전달

활 동 개교 70주년 기념 바자회 참여

교수협의회 사무국

1. 일 시 : 2017년 5월 17일 ~18일
2. 장 소 : 법정관 본관 로비
3. 내 용 : 개교 70주년 기념 바자회에 교수협의회 명의로 각종 물품 기증

활 동 스승의 날 기념 교수협의회 기념품 증정

교수협의회 사무국

1. 일 시 : 2017년 5월 18일 ~ 26일까지 각 학과 조교들을 통하여 배포
 2. 내 용 : 교협에서 준비한 손톱깎이 세트를 스승의 날 감사선물로 전달
- * 이사장님, 총장님 감촉인사, 설립자 故조희재 여사 유족대표 (이용우 전 총장님) 감촉인사

활 동 1학기 신규 임용 전임교원에 대한 축전 발송

교수협의회 사무국

1. 일 시 : 2017년 3월 10일
2. 내 용 : 총 22명 (죽전캠퍼스 3명, 천안캠퍼스 19명)

활 동 교수휴게실 활성화 및 원두커피서비스 실행

교수협의회 사무국

1. 일 시 : 2017년 3월 2일 ~ 1학기 수업 종강 때까지
 2. 장 소 : 죽전캠퍼스 - 대학원동 7층 교직원식당 옆 교직원룸
(전자동 커피머신 설치 -회장 이은재 기증)
천안캠퍼스 - 교직원휴게실
- 교직원 휴게실(죽전캠퍼스 대학원동 7층) 테라스 오픈 및 천안캠퍼스 교직원휴게실 자동문 설치
- * 추후 루프 설치하여 사계절 이용 가능하도록 학교 당국과 협의 중

행 사 야식행사(죽전 : 단독, 천안 : 학생회 공동주최)

교수협의회 사무국

죽전캠퍼스

1. 일 시 : 2017년 4월 20일(중간고사), 2017년 6월 15일(기말고사)
2. 장 소 : 해당관 앞(헌혈버스 앞)에서 진행
3. 내 용 : 햄버거 300개씩 학생들에게 증정, 기부 : 롯데칠성음료(주) 최민석 동문

천안캠퍼스

1. 일 시 : 2017년 4월 19일(중간고사), 2017년 6월 14일(기말고사)
2. 장 소 : 울곡기념도서관 앞에서 진행
3. 내 용 : 샌드위치 300개씩 학생들에게 증정



활 동**2017년 신입보직발령교수 화분 및 명패발송****교수협의회 사무국****1차**

김병량 교수(교학부총장, 명패)

어진우 교수(산학부총장, 명패)

이일석 교수(학생처 처장, 화환)

김수복 교수(부총장, 화환)

윤영덕 교수(예술대학 학장, 명패)

홍성은 교수(음악대학 학장, 명패)

2차

문명진 교수(자연과학대학 학장, 명패)

서동완 교수(약학대학 학장, 명패)

민경원 교수(건축대학 학장, 명패)

이창욱 교수(예술디자인대학 학장, 명패)



축하 화분 (김수복 부총장님)



축하 명패 (홍성은 음악대학 학장님)

활 동**1학기 교직원 정년퇴임식 시행****교수협의회 사무국**

1. 일시 : 2017년 8월 30일(수) 11:00

2. 장소 : 죽전캠퍼스 해당관 학생극장

3. 퇴직교수 : 총 14명

김성순 교수(상경대학 무역학과)

김정신 교수(건축대학 건축학과)

신승철 교수(치과대학 치의학과)

원복자 교수(예술디자인대학 도예과)

전웅수 교수(상경대학 경영학부)

조기용 교수(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최재화 교수(상경대학 경영학부)

김영수 교수(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문현경 교수(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여성문 교수(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이기식 교수(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정 란 교수(건축대학 건축공학과)

천재식 교수(치과대학 치의학과)

한백진 교수(예술디자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활 동**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날짜순)****교수협의회 사무국**

김재호 교수(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빙부상)

김선정 교수(예술디자인대학 무용과, 모친상)

조재형 교수(융합기술대학 산업공학과, 부친상)

김명진 교수(의과대학 의학과, 모친상)

박동국 교수(의과대학 의학과, 모친상)

신득용 교수(의과대학 의예과, 부친상)

전용균 교수(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모친상)

김용민 교수(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부친상)

이지숙 교수(공공인재대학 사회복지학과, 부친상)

이우걸 교수(공과대학 화학공학과, 빙부상)

윤주필 교수(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모친상)

조용범 교수(치과대학 치의학과, 빙모상)

백형희 교수(융합기술대학 식품공학과, 모친상)

안영진 교수(상경대학 경영학부, 부친상)

이재훈 교수(치과대학 체의학과, 부친상)

정원진 교수(상경대학 경영학부, 부친상)

왕신영 교수(외국어대학 일본어과, 부친상)

명나혜 교수(의과대학 의예과, 모친상)

이석균 교수(공과대학 소프트웨어학과, 빙모상)

김태기 교수(상경대학 경제학과, 빙부상)

김승오 교수(치과대학 치의학과, 빙부상)

김형건 교수(의과대학 의예과, 빙부상)

이상훈 교수(교양교육대학 교양학부, 부인상)

이유찬 교수(스포츠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모친상)

곽상준 교수(의과대학 의예과, 모친상)

임덕순 교수(정책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빙부상)

윤한솔 교수(예술디자인대학 공연영화학부, 부친상)

교협브리프는 우리대학 교수님들의 집단지성에 의해 작성·배포되고 있습니다. 학내 소통의 공간 형성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교수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적극적인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메일 혹은 방문 환영합니다
e-mail : prof@dankook.ac.kr 익명/기명 원고를 작성하여 본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협로고디자인-강혜경(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제15기 교수협의회 슬로건 '섬김, 소통, 참여'를 손 형태로 상징화
교협브리프 15-1 발행일 2017년9월5일, 발행인 이은재, 인쇄인 조한승, 편집인 임수경, 디자인 정훈동, 행정 이근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Tel 031-8005-2894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